

농업회사법인 다솔, 장흥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기증



<장흥소방서 제공>

농업회사법인(주)다솔이 최근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에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에 기탁했다.

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면 자동으로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응급 장비다.

노정근 다솔 본부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응급처치가 가능한 AED를 보급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주)다솔의 AED 기증은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로 사망률을 감소에 기여하며 안전하고 전통시장 조성에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남농협, 상호금융 대출금 1000억원 달성탑 수상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가운데)는 최근 해남농협(조합장 장승영·오른쪽 4번째)이 상호금융 대출금 1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최근 해남농협에서 달성탑 전수식을 열었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지역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 성장을 유도하고자 시행 중인 제도이다.

해남농협은 코로나 19장기화에도 건전여신

추진에 매진한 결과 상호금융 대출금 1000억원을 달성했다.

장승영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건전경영을 통해 조합원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배우 황석정 가수 데뷔

배호 '안개 낀 장충단공원' 리메이크



배우 황석정이 '가객(歌客) 배호의 명곡 '안개 낀 장충단공원'을 리메이크한 디지털 싱글(사진)을 발표해 가수로 데뷔했다고 뮤직월이 1일 밝혔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황석정은 그동안 KBS 2TV '불후의 명곡', MBC TV '복면가왕' 등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가 재해석한 '안개 낀 장충단공원'은 재즈 피아니스트인 황성근은 대학 시절 연극반에서 음악극을 함께 만든 선배이다. 뮤직월은 "황석정은 매력적인 저음이 트레이드 마크인 배호의 음악을 그대로 사용해 그의 음악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존하려 노력했다"며 "오는 11월까지 데뷔 앨범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사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광주청사관리소장 최순환
 - ◆여수광양항만공사
 - ▲감사실장 이상목 ▲안전보안실장 유충호 ▲기획조정실장 서위원 ▲사회복지혁신실장 임형윤 ▲경영지원부장 장방식 ▲물류전략실장 정기철 ▲디지털정보실장 운승재 ▲물류단지부장 심인섭 ▲여수지사장 선정덕 ▲여수세계박람회조직 TF 총괄단장 백정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직 발령
 - ▲경영지원실 총무팀장 김홍원
 - ◆광주대
 -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부단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 노선식 ▲대학신문방송사 주간교수 윤석년 ▲산업인력교육원장 노만진 ▲국가안보·대테러연구소장 백중순 ▲AI융합협력센터장 임철홍 ▲공용장비지원센터장 방결원 ▲학교기업 이모든 사업단장 송수남 ▲광주·전남문화관광상품 디자인 혁신센터장 오병욱 ▲국방기술학부장 강마루 ▲언어지료학과장 김충명 ▲유아교육과장 김호현 ▲경영학과장 박경중 ▲보건의정학부 전공주임교수 양유정 ▲경찰법행정학부 전공주임교수 정찬욱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전공주임교수 오연정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주임교수 이용교

광주보훈청, 신흥식 선생 손·자녀에 위문품·명패 전달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최근 3·1절을 맞아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함께 광주시 거주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고(故) 신흥식 선생의 손·자녀를 찾아 대통령·국가보훈처장 명의 위문품을 전수하고 독립유공자 명패를 전달했다.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롯데아울렛 남약점, 목포 태화모자원에 생필품



롯데아울렛 남약점(점장 김광희) 사택데 봉사단은 최근 목포시 용당동 사회복지시설인 태화모자원을 찾아 미혼모를 위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청소봉사를 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50 나만의 살던 고향은(재) 55 UHD 숨터	00 주접이 풍년(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주유기갑스3	00 애니갤러리 30 라바 아일랜드 45 스푸키즈 시즌3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우리끼리 작전타임	00 12 MBC 뉴스 20 트레이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오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 동물티비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또봇V(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우정병조의 인싸투어(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 15 렛츠 고릴라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닥터 365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분방을 보자	00 내고향 전파(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1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사랑의 파배기	10 두 번째 남편 5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00 SBS 8 뉴스 40 KBC 8 뉴스
8	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00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초청 3차 사회분야
9		30 우리끼리 작전타임		
1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40 갖파더	00 MBC 뉴스데스크 50 라디오스타	00 골 때리는 그녀들
11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나이트라인
12	10 공사창립특선 다큐 인사이트(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30 오마이싱어	2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50 약의 마음을 읽는 자들(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하프와 친구들 (재)
07:00 두다다쿵	12:00 EBS 뉴스 12	17:45 시공
07:15 티시테시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8:45 타타와 쿠마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50 EBS 다크프라이미	19:00 미니특공대 애니멀트론
08:00 딩동댕 유치원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9:30 한국의 둘레길
08:20 한글왕사 아이야	15:05 클래스 e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50 방귀대장 뽕뽕이	15:25 EBS 비즈니스 리부	20:40 세계테마기행
09:05 빅 블루	15:40 지식채널e	21:30 한국기행
09:2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6:05 통통가족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30 타요의 생생극장	16:15 페퍼 피그	22:45 다크영화 길 위의 인
09:40 우리집 유치원	16:25 봉우야 말해줘3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둘레길	16:40 딩동댕 유치원(재)	23:5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일(음 1월 30일 甲寅)

☎ 010-9790-8237

<p>36년생 방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48년생 길은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60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72년생 바람직한 계기가 조성되어 가는 마당이니라. 84년생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본인은 정작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96년생 생중용의 도를 지키자. 행운의 숫자 : 01, 74</p>	<p>42년생 처음처럼 깔끔하게 하나까지 없으면 부실해지기 쉽다. 54년생 상호간에 쉽게 통할 수 있느니라. 66년생 믿음이 간단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78년생 전면적으로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날이다. 90년생 지속적인 노력만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니라. 02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판국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40, 91</p>
<p>37년생 상부상조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49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61년생 허자는 없으니 마음 놓고 대하라. 73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85년생 자신이 변해야 국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97년생 북스러운 운세가 펼쳐지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자. 행운의 숫자 : 28, 80</p>	<p>43년생 죽을지 모르지 않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55년생 환경면 조건하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느라고 고민하리라. 67년생 흙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79년생 자신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 91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03년생 말은 아끼되 무겁게 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7, 70</p>
<p>38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겠다. 50년생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있다. 62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취하게 된다. 74년생 구름이 빠르게 밀려가면서 맑게 개는 이치이니라. 86년생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98년생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7, 73</p>	<p>44년생 분수와 격에 맞아야 순조로울 것이다. 56년생 필수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당황하겠다. 68년생 시작할 때 상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80년생 크게 상권될 바가 아니라 기존의 도량대로 추진하라. 92년생 폭넓은 시야로 참신함을 도모할 수 있다. 04년생 조금만 더 진행하고 있으면 원하던 단계에 이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6, 54</p>
<p>39년생 서둘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51년생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보느니라. 63년생 난제를 잘 풀어내야만 하는 형국에 놓여 있다. 75년생 정후가 나타나거든 즉시 조동 대응해야 하느니라. 87년생 가까운 이에게 꼭 격려줘야 할 일이 있다. 99년생 판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8, 75</p>	<p>33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쇠퇴하게 되리라. 45년생 균형 감각과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57년생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다. 69년생 망심하고 있다면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예의 주시하라. 81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하라. 93년생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31, 61</p>
<p>40년생 세분화 시켜서 날마다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단계이다. 52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64년생 처음부터 짧은 인연임을 알고 대해야겠다. 76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88년생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00년생 적응하려고 노력하자. 행운의 숫자 : 09, 63</p>	<p>34년생 인정했을 때 개선의 여지도 보인다. 46년생 뻔히 다 알면서도 휩쓸려 들어갈 수 있음을 주의하라. 58년생 눈에 띄는 것이 없으리라. 70년생 전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82년생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판국에 놓여 있다. 94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만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69</p>
<p>41년생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형국이다. 53년생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65년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77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89년생 원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01년생 주된 일에 매진하다 보면 부수적인 사항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16, 94</p>	<p>35년생 역할과 기능의 분담이 절실한 때이다. 47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59년생 조심성이 지나치다면 위축되고야 말 것이다. 71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83년생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펼쳐라. 95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44, 58</p>